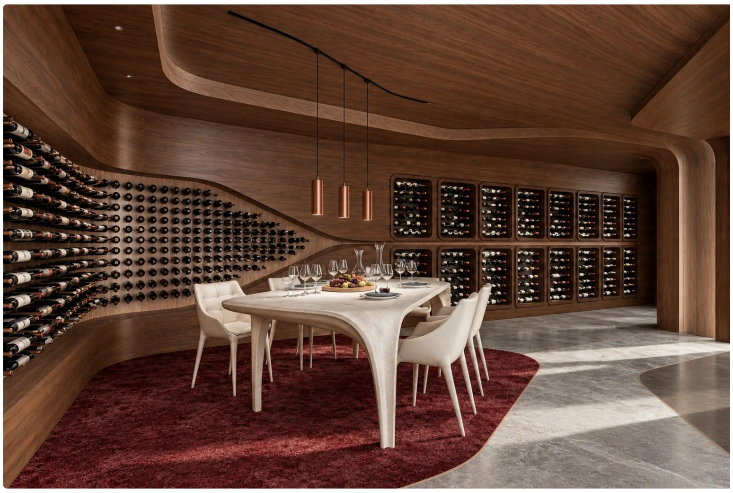
KIMBARRY: 소중한 컬렉션을 일상 속에 담다

와인셀러 설계는 때로 의자를 뒤로 당기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KIMBARRY가 공개한 선전 인후 개인 와인셀러 공간 개념도에는 나무색 와인랙이 벽을 따라 이어지고 가운데에는 석재 상판의 긴 테이블이 놓여 있습니다. 그림에서는 각자 제자리를 차지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의자를 뒤로 당기면 질문이 생깁니다. 누군가 앉은 뒤에도 뒤로 지나갈 수 있을까요? 돌아서서 랙의 와인을 꺼낼 때 테이블에 앉은 사람에게 비켜 달라고 해야 할까요? 앉은 자리에서는 와인으로 채운 벽이 보일까요, 아니면 테이블 위의 너무 밝은 조명이 눈에 들어올까요?

이런 문제는 멀리서 바라본 투시도 한 장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평면 치수로 돌아가 의자 등받이, 수납장 문, 통로를 함께 계산하고 실제로 방을 쓸 때 사람이 어디에 서서 무엇을 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보기 좋은 와인랙은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은 그것을 한 공간과 몇 사람의 생활에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金巴莉(KIMBARRY)를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와인랙 제작과 와인 진열에서 출발해 와인셀러, 개인 소장품 공간, 상업 전시로 일을 넓혀 왔습니다. 랙 한 줄은 물건을 어디에 놓을지 해결합니다. 개인 소장품 공간을 만들려면 누가 쓰고, 어떻게 꺼내고, 어떻게 보여 주며, 인도 후에는 어떻게 오래 관리할지도 해결해야 합니다. KIMBARRY는 이런 질문을 함께 검토합니다.



선전 인후 개인 와인셀러 · 과거 화보집을 바탕으로 정리한 공간 개념도

와인랙 한 줄에서 시작해 공간을 읽는 법을 익히다

와인을 진열하려면 먼저 병을 이해해야 합니다. 줄지어 놓기 좋은 병은 무엇이고, 더 넓은 자리가 필요한 병은 무엇이며, 사람에게 보이도록 돌려 둘 라벨은 무엇일까요? 매장 입구에서 보이는 것과 랙 앞에서 손을 뻗어 꺼낼 수 있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랙의 활용도는 목공 치수뿐 아니라 누구를 향하고 어디에 놓이는가에도 달려 있습니다.

KIMBARRY는 초기에 '金巴莉工坊', 즉 KIMBARRY 공방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시공 사례를 남겼습니다. 본문 페이지에 2010년으로 표시된 사례 모음은 여러 지역의 와인 공간을 함께 소개합니다. 윈푸의 한 와인 매장 계획에는 현지 석재와 소나무 와인랙이 보이며, 유리 전시대가 개별 전시하는 병과 줄지어 보관하는 재고를 구분합니다. 쉬저우의 다른 매장은 목재 랙의 높낮이와 비교적 대칭적인 배치로 방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전시 질서를 만듭니다. 같은 모음에는 샤먼의 지하 와인셀러도 있습니다. 지역이 다르면 방법도 달랐습니다.

이전 사례를 이어 보면 공방이 다룬 것은 나무와 병만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매장은 들어온 사람이 어디부터 봐야 할지 알기를 원하고, 운영자는 매일 재고를 보충해야 합니다. 지하 셀러는 먼저 방의 조건과 출입구, 보관 방식을 파악해야 합니다. 석재는 전시대에서는 질감을 결정하지만, 통로 옆에 놓이면 위치와 크기가 사람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줍니다. 작업을 깊이 할수록 가구 바깥의 과제가 드러납니다.

2011년 공방은 '좋은 와인셀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옛 설계 글에서 예술, 문화, 기술을 함께 논했습니다. 예술은 재료와 조명, 비례로 나타납니다. 문화는 주인이 자신의 소장품을 이해하고 보여 주며 나누는 방식입니다. 기술은 더 소박한 질문에 답합니다. 방을 다 만든 뒤 처음 생각한 대로 쓸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2012년에는 와인업계 포럼에 KIMBARRY의 워크인 와인 캐비닛을 소개하는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서로 가까운 시기의 기록은 초기 와인랙 공방이 단일 목공품에서 방 전체로 나아간 과정을 보여 줍니다.

옛 글에는 서로 전혀 다른 세 가지 방식도 나옵니다. 천장까지 이어지는 와인장, 벽에 매입한 나무 칸과 노출 벽돌의 조합, 랙 사이에 여백을 남기는 구성입니다. 한 페이지에 세 스타일이 나란히 있어 오히려 공방의 취향이 특정한 나무색보다 장소에 맞추는 데 있었음을 보여 줍니다. 보관량, 사람의 동선, 방의 원래 형태는 스타일 이름보다 먼저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계획도 지금 다시 볼 가치가 있습니다.

2015년: 보이지 않는 공정을 설계에 담다

브랜드 역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은 KIMBARRY가 보관 기술과 공간 서비스에서 한 단계 더 전환한 시점입니다. 그 전에도 방 전체의 와인셀러를 다루었지만, 이후에는 초점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와인랙, 캐비닛 문, 환경 조절 설비, 현장 시공이 서로 관계없는 도면으로 나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집의 빈방을 와인셀러로 바꾸려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먼저 벽을 재고 랙 몇 조를 놓을 수 있을지 살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도면을 그리려면 더 물어야 합니다. 방문을 열 때 가구 문에 부딪히지는 않을까요? 설비를 놓을 공간은 있어도 고장 나면 꺼낼 수 있을까요? 배관과 배선은 어느 벽을 통과하고 내장 공사의 어느 단계 전에 준비해야 할까요? 문 위치가 조금만 달라도 가구와 벽 도면을 다시 그려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개별 제품보다 두 요소가 만나는 곳에서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현재 KIMBARRY 공식 사이트는 와인셀러 서비스를 설명할 때 랙과 공간 외피, 문, 온습도 제어, 조명, 시공 연결을 한꺼번에 다룹니다. 와인 보관량, 방 구조, 실제 설비 조건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 자주 꺼내는 와인을 몇 줄로 명료하게 정리하면 되는 가정도 있고, 많은 보관량과 가끔 방문하는 손님, 앞으로 늘어날 컬렉션을 위해 공간을 남겨야 하는 개인 셀러도 있습니다. 사진을 더 눈에 띄게 하려고 모든 벽을 가득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또 다른 차이는 유지보수도 도면에 포함한다는 점입니다. 환경 조절 설비는 한 번 설치하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물건이 아닙니다. 가구와 벽, 설비가 서로 접근을 막으면 나중에 부품 하나를 교체하면서 무관했던 마감재까지 건드릴 수 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점검 공간을 조금 더 남기면 와인 몇 병을 덜 놓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래의 사용을 위한 길이 하나 더 생깁니다. 장기 보관에서는 얼마나 꽉 차 보이는가보다 실질적인 선택입니다.

방은 사람이 오래 쓰도록 만듭니다. 나무, 돌, 유리는 들어설 때의 첫인상을 결정하지만, 문이 열리는 방식과 손을 뻗는 동작, 고장 난 설비에 접근하는 곳은 이후 매번의 사용을 결정합니다. KIMBARRY는 이 두 부분을 함께 생각하고 인도 전에 확인할 목록에도 넣습니다.

같은 선전의 두 셀러, 서로 다른 주인의 사용법

선전 인후 개인 와인셀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과거 화보집을 참고해 공식 사이트에 공개한 개념도에서 테이블은 방 한가운데를 채우는 장식물이 아닙니다. 벽을 따라 이어진 나무 랙과 석재 상판의 긴 테이블이 시선을 중앙으로 이끕니다. 테이블과 랙 사이 거리는 사람이 앉은 뒤에도 통행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같은 면적을 서서 물건을 꺼내는 좁은 통로 여러 개로 바꾸면 더 많은 와인을 넣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다른 방과 다른 사용법입니다.

이번에는 선전의 개인 와인박물관입니다. 과거 화보집의 개념도에는 아치형 입구, 유리 너머의 와인 전시, 물건을 따로 놓는 전시대가 있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어디부터 볼까요? 어디에서 멈춰 자세히 보고, 어디에서 몸을 돌려 다음으로 갈까요? 매일 컬렉션을 관리하는 사람은 관람 동선을 끊지 않고 문을 열어 물건을 꺼낼 수 있을까요? 이 구성에는 묶어서 진열하는 부분과 개별적으로 자리를 마련한 부분이 함께 있습니다.

두 계획이 흥미로운 점은 동일한 '개인 와인셀러 견본'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후의 긴 테이블은 머물도록 초대하고, 와인박물관의 전시대는 시선이 소장품을 따라 움직이게 합니다. 하나는 테이블 주변 사람을 먼저 배치하고, 다른 하나는 관람 순서를 먼저 정리합니다. 나무색만 바꾸고 가구 위치와 동선을 그대로 두면 같은 공간의 두 버전을 만드는 데 그칩니다.

KIMBARRY가 맞춤 설계를 말할 때 눈여겨볼 것은 이런 결정입니다. 어떤 와인을 일상적으로 꺼내며 병을 한눈에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떤 소장품은 보여 주고 싶지만 오가는 사람마다 만지지는 않았으면 할까요? 이 두 질문에 답하면 가구의 깊이, 선반 간격, 빛이 오는 방향에도 자연스럽게 다른 답이 나옵니다.

2019년 이후: 와인에서 그림과 소장품 보관으로

2019년 9월 17일 선전 홍싱메이카이룽 핑후점에서 후난 디자인 역량 조명 디자인 포럼이 열렸습니다. 행사 보도의 지원 명단에는 'KIMBARRY金巴莉尊藏'이 있습니다. 브랜드 역사 자료도 2019년을 와인셀러에서 예술품 보관으로 더 넓어진 시점으로 봅니다. 같은 해의 일로 보면 하나는 디자인업계 대상의 공개 행사이고, 다른 하나는 브랜드 자체의 서비스 확장입니다. 서로 다른 소장품의 문제에 조명, 전시, 공간 관계를 달리해 답하기 시작했다는 공통된 흐름이 있습니다.

와인 한 병은 같은 묶음의 와인과 줄지어 놓을 수 있지만, 그림에는 몇 걸음 물러나 볼 자리가 필요합니다. 어떤 기물은 측면에서 빛을 받아야 어느 면이 아름다운지, 질감이 어떤지 드러납니다. 대상이 바뀌면 와인셀러에서 익숙하게 쓰던 방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유리 반사부터 그림을 거는 벽의 안정성, 반입과 교체를 위한 작업 공간까지 새로 생각해야 합니다.

공식 사이트에 공개된 후난 개인 미술관 설계 투시도에는 벽에 걸어 보는 작품과 눕혀 놓은 물건이 있고, 주변에는 머무르고 걸어갈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계획에서 자세히 볼 부분은 벽과 전시대의 관계입니다. 눈은 벽의 그림을 따라가다가 전시대를 만나면 아래의 기물을 봅니다. 모든 것을 한 줄에 같은 빛으로 놓으면 각 물건을 신중히 골랐더라도 서로 자리를 다투기 쉽습니다. 보는 리듬을 나누어야 소장품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볼 기회가 생깁니다.



후난 개인 미술관 · 설계 투시도

한 단계 더 생각해 봅니다. 다음 계절에 주인이 더 큰 그림으로 바꾸고 싶다면 어떨까요? 평소 다니던 길로 작품을 들일 수 있을까요? 잠시 놓을 깨끗한 작업대가 있을까요? 액자와 벽을 동시에 살피려면 어디에 서야 할까요? 거는 일과 떼어 내는 일은 서로 다른 동작입니다. 전시 기간, 작품 크기, 이동 방식을 미리 확인하면 지금의 작품뿐 아니라 주인의 컬렉션이 변화하는 과정에도 맞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개인 소장'이 모든 것을 보이지 않게 감추는 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주인은 눈앞에 둘 물건, 뒤에 보관할 묶음, 방문객에게 보여 줄 물건, 필요할 때만 꺼낼 물건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전시와 수납을 함께 마련하고 물건의 자리뿐 아니라 감상하고 관리할 사람의 여유도 남기는 것입니다. 와인셀러에서 개인 소장품 공간으로 넓혀 가며 KIMBARRY가 이어 온 것은 바로 이러한 배치의 기술입니다.

같은 시공 역량이 전혀 다른 모습을 만들 수 있다

충칭 셰신공관(协信公馆) 와인셀러 설계 투시도에서는 먼저 곡선형 벽돌 천장이 보이고, 그다음 양쪽 공간을 따라 펼쳐진 나무 랙이 보입니다. 아치가 이미 시선을 안쪽으로 이끌기 때문에 랙에 많은 장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져 볼 것은 벽의 변화를 랙이 어떻게 따를지, 통로 양옆에 어떻게 물건을 꺼내고 넣을 공간을 남길지, 조명이 벽돌 질감을 비출지 찾으려는 와인 선반을 비출지입니다. 잘 처리하면 방의 본래 형태가 계획의 일부가 됩니다.

쭌이 호텔의 맞춤 와인장 설계 투시도에서는 나무 랙과 벽돌 천장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식음 공간 옆에는 금속 프레임과 유리를 결합한 캐비닛이 서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은 밖에서 잘 볼 수 있지만 직원은 다른 관점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자주 꺼내는 물건은 어느 선반에 둘까요? 문을 열면 통로가 좁아질까요? 보충할 때 손님을 피해 돌아가야 할까요? 이곳에서는 문이 열리는 방향이 전시 효과만큼 중요합니다.

가정의 보관 공간은 주인의 습관에 맞춰야 합니다. 호텔과 음식점은 직원 교대, 일상 청소, 재고 보충, 영업 동선에도 맞춰야 합니다. 별장에서 천천히 다가가 살펴볼 수 있는 와인 벽을 사람이 자주 오가는 곳에 옮긴다고 적절한 방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례를 함께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습은 달라도 관통하는 판단 기준은 같습니다. 이곳을 어떻게 쓸지 먼저 알아야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안에 둘지 정할 수 있습니다.

차병, 가죽 가방, 손목시계마다 놓는 법이 다르다

KIMBARRY 공식 사이트에는 와인, 시가, 차, 침향, 예술품, 가죽 제품과 의류, 귀한 식재료, 장비와 정밀 소장품별로 설계 주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같은 브랜드 아래 있지만 동일한 가구에 넣지는 않습니다. 차이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물건을 집기 전의 동작이 다르고, 돌려놓은 뒤 만나는 빛과 공기, 주변 물건도 다릅니다.

차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자주 꺼내는 차도 있고, 배치별로 보관해 몇 년 뒤에도 식별해야 하는 차도 있습니다. 모든 벽을 진열에 쓰는 것이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손이 자주 가는 차는 가까이, 상자나 배치 단위의 차는 안쪽에 두는 편이 큰 개방형 선반보다 어떤 사람의 습관에 더 맞습니다. 침향은 물건별 분리 방법, 포장 보관 위치, 주변 냄새와 빛도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또 하나의 나무 가구처럼 보여도 내부 구성은 같을 수 없습니다.

가죽 가방과 의류를 보관하면 질문이 달라집니다. 자주 드는 가방은 아침에 손만 뻗어 꺼내고 싶습니다. 원래 포장을 유지한 물건에는 충분한 깊이와 높이가 필요합니다. 긴 외투는 걸었을 때 밑단이 접히면 안 됩니다. 가방 높이가 선반 배치를 결정하기도 하고, 늘어선 옷이 조명을 두려던 자리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같은 크기의 칸만 그려서는 일상의 동작을 살필 수 없습니다. 벽을 모두 채우는 것보다 조절할 구간 한두 곳을 남기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귀한 식재료 보관에서는 구역을 어떻게 나누고 포장을 어떻게 교체하며 어떤 배치부터 꺼낼지 고려해야 합니다. 시가 보관은 또 다른 공간 문제입니다. 원래 상자, 개별 수납 위치, 전시 구역을 어떻게 배치하고 설비와 문을 어떻게 맞추며 점검할 때 기존 진열을 방해하지 않을지 살펴야 합니다. 모두 '보관'이라 부르지만 사용법은 하나가 아닙니다.

공식 사이트의 장비 소장 공간 계획에는 선반과 유리 캐비닛 외에 정리대가 있습니다.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 상판은 역할이 있습니다. 외출 전 카메라와 렌즈를 펼쳐 고른 뒤 가방에 넣고, 돌아오면 가방에서 꺼내 정리한 다음 제자리에 둡니다. 정리대가 없어도 장비는 수납할 수 있지만 여러 일을 다른 곳에서 해야 합니다. 이런 연속된 동작을 설계에 넣었는가가 전시 공간과 쓰기 좋은 소장 공간의 차이입니다.

이러한 작업에는 공통된 출발점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관하고, 보통 누가 꺼내며, 앞으로 늘어날지를 묻는 것입니다. 문판 열 종류를 보여 주기보다 가장 큰 상자의 높이와 다음에 들어올 물건을 둘 곳을 먼저 보는 편이 낫습니다. 구체적인 답에서 나온 가구의 모습은 스타일 견본집에서 고른 것보다 그 집의 물건에 가깝습니다.

첫 줄자에서 인도 후의 목록까지

소장품 공간의 많은 결정은 인테리어 공사 후반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벽과 천장을 아직 닫지 않고 바닥도 정하지 않았다면 설비, 배선, 단열 경계에 조정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고정했다면 몇 센티미터를 옮기는 일에도 다른 공종이 얽힐 수 있습니다. KIMBARRY는 공식 사이트에서 상담과 현장 조건부터 계획과 상세 설계, 실행 조정, 인도까지 설명하며 변경 비용이 큰 사항을 먼저 명확히 할 것을 강조합니다.

실제 검토는 사진 몇 장, 평면도, 대략적인 소장품 목록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복도 끝에 수납장을 만들려면 먼저 계단, 엘리베이터, 문 개구부로 자재를 운반할 수 있는지 봅니다. 방을 워크인 와인셀러로 바꾸려면 유효 면적, 설비 위치, 인접 공간과의 관계를 살핍니다. 같은 집에서 사용 가능한 두 방의 면적이 비슷하더라도 설비, 전원, 운반 경로와의 관계에 따라 방식과 시공 일정, 예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획이 점차 정리되어야 앞에 둘 것과 뒤에 둘 것, 보이는 곳에 쓸 재료, 기계·전기 설비와 가구의 접점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환경 조절 설비 모델을 바꾼다면 천장에 숨기려던 공간이 충분한지, 전원과 배수, 방열, 점검구도 바꿔야 하는지를 설비 공급자에게만 맡길 수 없습니다. 이 조건을 같은 도면과 구성에 반영해야 다음에 현장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같은 계획을 받습니다.

방 전체를 한 팀에 맡기면 같은 공장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KIMBARRY 공식 사이트의 방식은 다릅니다. 프로젝트에 적합한 설비, 제조사, 전문 공급자를 선정하고 KIMBARRY가 재료, 구성, 제작 요구를 확인해 현장 실행을 통합 관리합니다. 고객이 설비업체의 치수도 한 장을 들고 목공, 인테리어, 설치 담당 사이를 다니며 답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고객이 선택해야 할 것은 확보할 보관량, 편리한 사용법, 예산을 더 쓸 가치가 있는 부분처럼 자신에게 직접 관련된 사항입니다.

예산 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약하려면 전시장을 한 조 줄일지 마감재를 바꿀지 비교할 수 있지만, 필요한 점검 공간부터 없애고 나중에 보완할 방법을 찾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공간을 다 채우지 않으면 당장 중요한 곳에 돈을 쓰면서 앞으로 늘어날 소장품의 자리를 남길 수 있습니다. 보관, 전시, 접객이 함께 있는 방에서는 실제 사용 빈도에 따라 주인이 예산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인도할 때 아름다운 사진은 기념이 되지만, 정말 남겨야 할 것은 설비 구성, 사용법, 유지보수 접근 위치, 합의한 검수 항목입니다. 상업 프로젝트는 관리 인수자가 시공에 참여했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 프로젝트에서는 주인이 공사 당시 대화방을 다시 찾지 않고도 점검 위치와 일상 주의사항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KIMBARRY는 프로젝트를 이끄는 총괄 도급자로서 전체 조정과 인도 책임을 맡습니다. 구체적인 범위와 인도 항목은 계획 및 프로젝트 합의에 따라 확인합니다. 고객에게는 완성 후 각 참여자를 찾아 묻는 것보다 계약과 착공 전에 이 부분을 명확히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선전에서 출발해, 먼저 당신의 방을 이야기합니다

KIMBARRY의 스튜디오는 선전에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는 도시를 넘는 프로젝트 상담 창구도 제공합니다. 현지 리모델링, 타지역 맞춤 제작, 해외 프로젝트 모두 먼저 확인할 정보는 같습니다. 주소, 현장 진행 단계, 공간 조건, 보관할 소장품, 현지 시공과 후속 유지관리의 연결 방식입니다. 원격으로 논의할 수 있는 것은 먼저 논의하고 현장에 가야 알 수 있는 것은 현장 확인에 맡깁니다. '가능한가'를 일찍 '이 방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로 구체화하기 위한 소통입니다.

처음 KIMBARRY에 연락할 때 스타일을 정해 둘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풀지 못한 질문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와인 백 병을 놓고도 테이블 자리가 남을까요? 새로 모은 기물을 진열하고 싶은데 유리가 반사되지는 않을까요? 집의 비어 있던 벽에 자주 쓰는 물건과 소중히 간직할 물건의 자리를 각각 만들 수 있을까요? 현장 사진 한 장과 실제로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논의가 구체적으로 바뀝니다.

와인랙 한 줄은 병을 가지런히 놓습니다. 사람을 위해 만든 소장 공간은 매일 보고 싶은 것, 손을 뻗어 바로 꺼내고 싶은 것, 친구에게 자세히 보여 주고 싶은 것에도 자리를 내줍니다. 이야기의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상적인 모습은 단순합니다. 의자를 당겨도 뒤로 지나갈 수 있고, 누군가 앉아 있어도 다른 사람이 와인 한 병을 꺼낼 수 있습니다. 방의 배치 때문에 누구도 먼저 일어나 길을 비켜 줄 필요가 없습니다.

와인랙에서 개인 소장품 공간으로 나아오며 KIMBARRY가 줄곧 잘하고자 했던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소중한 물건을 제자리에 두고, 그것을 모으는 사람의 생활도 돌보는 것입니다.

KIMBARRY 문의

KIMBARRY 문의 WhatsApp +86 186 8155 8730 kimbarry2857@gmail.com